

우리는 모두가 특별한 존재 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아이는 다른 사람도 그만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특별하고 귀한 존재로 존중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장애나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친구들을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건강한 심성을 가질 것입니다.

01

●● 지문 이야기

사람에게는 지문이라는 것이 있지요?

지문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장 대신 지문을 찍어서 자기 자신임을 증명하기도 하지요. 모두 다른 지문을 가진 우리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 능력이 있고 없음과 관계없이 누구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지요. 장애가 있어도 피부색이 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느끼고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 하나 뿐인 소중한 존재로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도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보세요

-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거나 부모님께서 퇴근해서 돌아오시면 제일 먼저 아이를 고통 껴안아주세요.
- 하루에 한번은 꼭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소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세요.
- 다른 사람의 느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세요.



♪ 단 하나 뿐 ♪

작사 : 이수정, 김진영
작곡 : 김진영



우리는 모두 자라고 있어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 말을 했을 때, 그 밖에 어렸을 때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누구나 처음부터 잘 하는 것은 아니며, 조금씩 자라고 연습을 하면서 몸도 생각도 행동도 자라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보다 적극적인 아이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02

인간은 누구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합니다.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는 동물들도 있지만 인간은 오랜 시간 사랑과 보호를 받고 스스로 연습을 함으로써 비로소 걷고 말하고 혼자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장하고자 하는 본능과 성장을 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모두가 매일매일 자라고 있지요. 성장의 속도는 모두 다르지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격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 보세요

- 사진첩을 보면서 아이의 자라온 과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 아기였을 때에는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 지금은 잘 하지 못하지만 자라면서 더 잘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지금까지 받아온 많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지금은 잘 하지 못하지만 잘 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며,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기다려주면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느낌에 대해 알게 해 주세요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를 아는 것은 유아기에 배워야 하는 중요한 사회-정서적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가 스스로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속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다양한 친구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아는 건강한 심성의 아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03

아이들은 아직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툰데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조절하는 것도 어렵지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을 곤란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를 쓰거나 격렬하게 울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단지 아이의 느낌을 이해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엄마가 네 마음을 잘 몰라줘서 많이 화가 났구나”, “동생이 네 장난감을 부셔서 속상했잖나.”하고 아이의 느낌을 설명해주시고 꼭 안아주세요. 자신의 느낌을 엄마, 아빠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를 내던 마음이 한순간 사라집니다.

또한 자신의 느낌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주세요. 효과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의 느낌도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느낌을 잘 헤아리는 아이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 보세요

- 아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야단만 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엄마에게 소리를 치면 엄마는 너무 슬퍼”하고 아이의 행동에 대한 부모님의 느낌을 먼저 이야기해주세요.
-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슬픈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느낌을 이야기해 보세요. 또 여러 가지 느낌을 표현하는 말(예: 섭섭하다, 행복하다)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어요.
- 같은 의미지만 더 친절한 느낌을 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저리 비켜!”라고 말하는 대신 “비켜줄래?”하고 말할 수 있지요. 아이가 화를 내거나 부적절하게 말할 때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대신 더 고운 말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해주세요.
- 아이와 함께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이야기해 보세요.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두고 함께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말의 느낌에 대해 생각을 나누어봄으로써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나누는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기쁘게 하는 말

- | | |
|----------------|----------------------|
| ♥ 고마워 | ♥ 내 소중한 딸(아들) |
| ♥ 사랑해 | ♥ 근사해 |
| ♥ 멋져 | ♥ 어쩜 그렇게 멋진 생각을 해냈니? |
| ♥ 굉장한 걸 | ♥ 정말 열심히 했구나 |
| ♥ 넌 정말 특별해 | ♥ 넌 참 좋은 아이야 |
| ♥ 네 덕분에 정말 행복해 | ♥ 네가 자랑스러워 |

우리의 몸은 소중해요

우리의 몸은 누구에게나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예쁘거나 못생겼거나 뚱뚱하거나 날씬하거나 모두 소중하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다정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외모가 근사해야만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그 자체가 모두 특별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를 긍정하고 몸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양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04

“누구누구가 성형을 했다더라.”하는 소식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워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너무 획일화되면서 ‘아름답지 못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의 몸은 상대적으로 무가치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피부색이 달라도 충분히 소중하고 멋진 수 있습니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손과 다른 사람의 손짓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에 소중하고 멋집니다.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어도 입으로 또는 발로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네 개의 손가락으로도 충분히 멋진 음악을 연주할 수 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발을 가졌어도 멋진 생각을 할 수 있기에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이렇게 해 보세요

- 공을 멀리 찰 수 있거나 두 손으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처럼 내 몸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는 것은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 사람들은 모두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몸은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세요.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건거나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고 나와 다른 방법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 구족화가나 휠체어를 탄 무용수,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처럼 특별한 몸을 가졌기에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

- ♥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특히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는다.
- ♥ 적은 시간이라도 운동을 한다.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이면 더욱 좋다.
- ♥ 오늘 하루 날 위해 수고한 몸이 충분히 쉬 수 있게 잘 씻고 잘 잔다.
- ♥ 하루에 한 번 이상 거울을 보고 “난 참 멋지다”라고 말한다.

가족을 돕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어른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애나 병을 가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어른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도움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인간이 가진 미덕이며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족을 돕는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즐겁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장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친구를 자연스럽게 도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될 것입니다.

05

다른 사람을 돕는 경험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도덕심을 발달시킵니다. 또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이에게도 부모님께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 보세요

● 엄마, 아빠와 함께 하면 더 즐거워집니다

아이들은 가족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엄마, 아빠와 함께 하면 더 즐거워하지요. 요리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온가족이 함께 도와서 일한다면 아이들에게는 그 일이 또 하나의 좋은 놀이가 됩니다.

● 노력하는 것에 칭찬을 해주세요

아이들은 때로 혼자서 일을 완수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조금 위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과제를 해냈다는 성취감은 아이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적극적인 성격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넌 잘 못하니까”,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것이 낫겠다” 하는 말들은 스스로 무능력하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할 때 결과보다는 노력하는 과정에 대해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꼭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도움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됩니다.

●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주고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병이 있는 친구들, 나보다 어린 동생들, 때로는 엄마, 아빠, 선생님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가치있는 일입니다.

● 도와줄 때에도 예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가끔 아이는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 도와주는 데에도 예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여도 그 사람은 도움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기 전에는 꼭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보도록 가르쳐주세요. 상대방이 도움을 사양하면 도움을 거두는 것도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중요한 예절입니다.

집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들

- | | |
|----------------------|--------------------------|
| 01 애완동물 돌보기 | 09 현관에 있는 가족들 신발 정리하기 |
| 02 식사 시간에 수저 놓기 | 10 엄마와 함께 빨래 개기 |
| 03 식사 전후에 행주로 식탁 닦기 | 11 가족들의 양말 정리해주기 |
| 04 세탁기에 빨래 넣기 | 12 가족을 즐겁게 해줄 일 계획하기 |
| 05 마른 걸레로 가구 닦기 | 13 그밖에 가족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 |
| 06 동생에게 놀이하는 방법 알려주기 | |
| 07 동생과 함께 동화책 보기 | |
| 08 아기에게 노래 불러주기 | |



Ⅱ.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요



다양한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 주세요

아이들은 누구나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외모가 달라도 모두가 비슷한 점을 갖고 있지요. 반면 아이들은 모두 다릅니다. 잘 하는 것도 다르고 잘 하지 못하는 것도 다르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워갑니다.

01

서로 다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므로 서로가 가진 다른 점들을 느끼고 인정하면서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 다른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다보면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키워집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능력과 특성을 가진 친구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더 좋은 것을 만들고 더 멋진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 보세요

○ 다양한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보세요

부모님 어릴 적에는 친구네 집으로 자주 '마살'을 가곤 했습니다. 특별히 초대를 받은 적도 없고 근사한 대접을 해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자체가 신나고 즐거운 경험이었지요. 지금은 생활이 복잡해지고 맛벌이를 하는 부모님도 많아져서 친구네 집으로 편하게 놀러가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가끔은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놀도록 해 보시면 어떨까요? 많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유치원에서 보다 훨씬 친밀한 느낌으로 놀 수 있고 다양한 친구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이가 친구와 어떻게 지내는 지 관찰하고 아이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의 회고

하루는 민희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내일 수정이라는 친구를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수정이란 친구를 기억할 수 없어서 누구인가를 물었다. 민희는 수정이의 머리 모양과 새 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수정이가 그린 그림들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래도 나는 수정이란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민희는 수정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설명하였고 마침내 “머리에 커다랗고 예쁜 리본을 맨 친구”라고 설명하였다. 비로소 나는 수정이가 누구인지 기억해낼 수 있었다. 수정이는 매일 아침 머리에 커다란 리본을 매고 휠체어를 타고 유치원에 오는 아이였다. ‘휠체어를 타는 친구라고 설명했으면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민희에게는 휠체어가 수정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니라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장애 이야기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엘리베이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점자 안내판, 지하철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 경사로...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외출을 하실 때 이런 시설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장애인들을 불쌍한 존재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는 대신 우리와 더불어 생활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며 장애인들의 생활과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02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시각장애인들이 횡지팡이나 발바닥을 이용해서 지면의 변화(예: 지하철 승강장과 지하철이 들어오는 곳의 경계)와 장애물에 대한 정보, 안내판의 위치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블록입니다.

점자블록은 주로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는 색깔을 변별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쉽게 변별할 수 있게 하고 일반인들이 점자블록임을 알게 해서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가의 물건을 점자블록 위에 둔다거나 지하철을 기다릴 때 점자블록 위에서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보세요

- 아이와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점자들을 찾아보고 만져보세요. 관찰력도 길러지고 시각장애인을 이해하는 마음도 함께 커집니다.

●●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점자

점자는 원래 군인들이 야간전투를 할 때에 어두운 곳에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점자는 1-6개의 볼록한 점을 조합하여 초성과 종성, 모음을 만들며 알파벳, 부호, 숫자도 있고 자주 쓰는 글자는 약자를 쓰기도 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안내판, 엘리베이터 버튼, 술이나 음료수 캔, 약, 지폐 등에서 점자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점자는 아니지만 유리병 등에 상표를 볼록하게 만들어놓거나 동전처럼 양각으로 숫자와 그림 표시를 해둠으로써 만져서 구별할 수 있게 해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자와 입체적인 상품 표시는 시각장애인들이 혼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혼자서 원하는 상품을 고르고 구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주변에 점자 표시가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시각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더욱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겠지요?



장애 이야기 2 모두에게 편리한 시설

때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보다 특별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기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가 편리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런 생각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03

●● 여러 가지 전광판

지하철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전광판들은 안내방송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안내방송을 미처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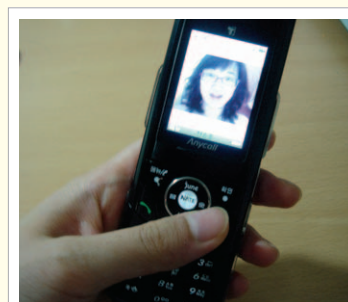
●● 경사로

경사로는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하지만 유모차를 끌고 다니거나 관절염 등으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을 모시고 다닐 때 편리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 영상통화

휴대폰과 관련된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서 이제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영상통화도 가능하게 되었지요? CF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영상통화는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를 이용하여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 지하철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요즘은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장애인용 리프트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외에도 임산부나 노약자, 기타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몸짓을 이용하거나 그림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의사소통을 할 때에도 몸짓이나 표정에 따라 말의 내용이 다르게 전달되기도 하지요. 아이에게 여러 가지 의사소통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세상을 보는 넉넉한 눈이 길러질 것입니다.

04

우리 주변에는 청각장애가 있거나 운동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턱이나 혀를 잘 움직이지 못하거나 뇌기능의 이상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적인 방법이 발달하여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림을 누르면 말이 나오는 기계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그림 카드 같은 것을 가리켜서 원하는 것을 말 하기도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일반인들과 대화하기 위해 말(구화)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수화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더 잘 할 수 있다면 수화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 수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수화와 수화 노래 같은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사회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신념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하는 방법이 아니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렇게 해 보세요

- TV에서 수화 통역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이와 함께 수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들을 수 없어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집에서 간단한 수화를 사용해 보세요. 큰 소리를 내어 말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할 수도 있고, 수화를 이용해서 가족 간에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 ●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를 이용해서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림을 누르면 그림에 따라 미리 녹음된 말소리(예 : “밥 먹으러 가요”)가 나와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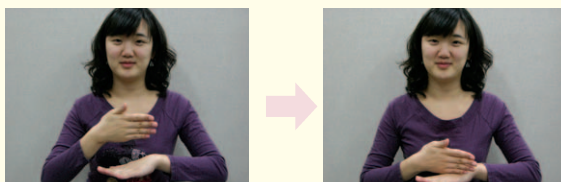
- ● 장애 아동이 간단한 의사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 카드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 카드를 보여주거나 지적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수화를 배워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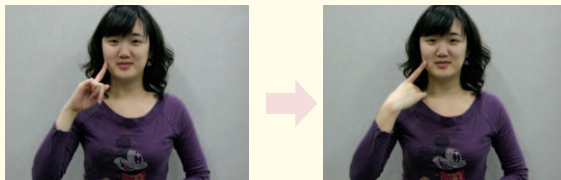
사랑해요 : 왼손은 가슴 쪽에 주먹을 친 채로 고정하고 오른손은 펴서 돌려준다.



고맙습니다 : 왼손은 가슴 쪽에 손등이 보이게 펴서 고정하고 오른손은 손을 펴서 왼손 손등을 가볍게 친다.



예뻐요 : 오른손 검지를 볼에 대고 살짝 돌려준다.



마서즈 비니어드 섬 이야기

미국의 보스턴 남부에 있는 마서즈 비니어드 섬에는 17세기 영국의 켄트 주에서 집단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1900년대 초까지 마을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이 섬에는 유난히 유전적인 청각장애인들이 많았는데 이 때문에 마서즈 비니어드 섬에서는 건청인과 청각장애인이 모두 수화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수화는 제 2 외국어와 같았고 수화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청인들은 모두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화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섬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대우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청각장애인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마서즈 비니어드 섬 사람들의 이야기는 서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면 청력에서의 문제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출처: 박승희 역(2003), 마서즈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

다양한 아이들이 어울려 살아요

유치원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키가 큰 아이 · 키가 작은 아이, 그네 타기를 좋아하는 아이 · 미끄럼 타기를 좋아하는 아이, 말을 잘 하는 아이 · 생각에 잠기기를 좋아하는 아이, ...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한 외모를 가졌거나 조금 다른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 아이들을 ‘장애를 가진 아이’라고도 하지요. 하지만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은 ‘장애’라는 말을 모르기에 그저 조금 더 다른 친구, 특별한 친구, 도움이 더 필요한 친구로 이해하곤 합니다.

서로 다른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환경은 언제나 아이들에게 훌륭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언제나 어른들의 몫입니다.

05

아이들은 ‘장애를 가진 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친구를 도와주어야 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양보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서로 돕고 배려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친구와 함께 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면서 생각도 커갈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자라나 어른이 된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너그럽고 따뜻한 것입니다.

‘장애’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장애’라는 말을 아직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장애’라는 말 대신 ‘친구’라는 말을 먼저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은 하나하나 모두 다르지만 또 모두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장애’는 한 아이를 설명하는 전부가 아니라 그저 그 아이가 가진 많은 특성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모두 다르기에 모두 특별한 아이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환경은 그 어떤 교육과정보다도 훌륭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교사와 부모님의 몫입니다.



어느 특수학교 교사의 글

인근 유치원으로 통합교육을 나갔던 첫날 서로 인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한 명씩 소개했다. 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들을 잘 하는지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의 특이한 행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가령 친구들을 자주 툭툭 때리는 영민이의 경우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영민이가 툭 치면 ‘너 좋아’ 하는 뜻이니까 화내지 말고 ‘영민아, 나랑 같이 놀고 싶어? 그럼 같이 놀자고 얘기해 줘’ 하고 말하세요.”라고 알려주었다. 아이들은 설명을 차근차근 듣더니 모두들 우호적인 자세로 우리 반 아이들을 대해주었다. 어찌다가 영민이에게 한 대 맞은 아이는 오히려 좋아하며 “애가 나 좋아한대!”하고 웃기도 했다. 반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다른 반 아이들은 “외계인이다!”, “괴물이다!”라며 놀리거나 나름대로 의정한 척 “괴물 아냐, 장애인이야”하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도 어른들의 시각이 그대로 아이들의 것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출처 : 아이빛그림 ‘조금 느린도 괜찮아’ 중에서 / 도서출판 이라〉



이렇게 해 보세요

- 아이와 함께 “달라도 똑같아요” 노래를 불러보세요. 모든 친구들이 다 다르지만 똑같은 친구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달라도 똑같아요 ♪

작사 : 이소현
작곡 : 류동일

조금 달라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마 음

키가 조금 커도 조금 작아도 우리는 똑같아요

눈이 안 보여도 귀가 아니들려도 똑같아 똑같아 요

우리 모두 조금씩 달라도 모두가 사랑하는 친구랍니다

장애 아동 통합, 이런 점이 궁금해요



06

Q 민아같은 아이들은 특수학교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일반 유치원에서 민아가 충분히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요.

A 민아에게 가장 필요한 특수교육은 또래와의 통합입니다

지금 민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또래들과 함께 지내는 경험입니다. 민아는 나이에 적절한 행동들을 배워야 하고 특히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의사소통하는 방법, 또래들과 노는 방법 같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또래와 함께 지내지 못하는 특수학교에서는 가르치기 어려운 것들이지요. 현재까지의 여러 연구들은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 유아들의 발달과 학습의 성과가 적어도 분리된 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정도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아가 단지 우리 반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들은 함께 놀기 더 편한 친구들과 더 많이 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민아와 함께 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민아의 외모나 민아의 행

동을 이상하다고 꺼리거나 놀리는 경우도 있구요.

민아가 우리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 친구들이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아에게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민아를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민아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반은 우리 반 모든 친구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반입니다. 그런 반을 만들기 위해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답니다. 부모님들께서 통합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Q 은수에게는 통합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반 아이들은 은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의 손이 더 가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A 다른 점이 많을수록 배울 것도 많습니다

서로 다른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장애’를 가졌거나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이 느린 친구들이 있다면 그만큼 반 아이들이 도울 일도 많고 배려해야 할 상황도 많겠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많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기도 하지만 유용한 ‘학습’의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통합교육을 통해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방법, 나와는 다른 모습과 특성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고 은수와 함께 생활하면서 겪는 문제 상황들은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은수가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잘 하도록 가르치는 과정에서 반 아이들 전체의 상호작용이 늘어나기도 하고 은수가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이유로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다른 아이들의 사회적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 연구들에 의해 실제로 통합교육의 성과로 보고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통해 배울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다름’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활용하는가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를수록 그만큼 힘든 부분도 많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배우는 것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온수와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혹시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것을 특별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Q 저는 우리 정우가 경민이와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경민이를 많이 도와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주어도 경민이를 별로 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네요. 어떻게 하면 정우가 경민이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A 경민이와 즐겁게 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특히 경민이와 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도와주고 배려해주라고 얘기하게 되는 상황이 그만큼 많지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자칫 하면 아이들이 경민이를 나와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라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특별한 아이'로만 인식하게 될 가능성도 큰 것 같습니다. 경민이와 친구로서 상호작용을 하는 경험보다는 일방적으로 경민이를 도와주는 경험만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요. 우선은 경민이를 도와주는 것은 경민이가 특별한 아이여서가 아니라 모든 친구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해주세요. 그리고 경민이와 즐겁게 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정우를 경민이네 집으로 놀러가게 해도 좋고 경민이를 집으로 초대해서도 좋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는 유치원보다는 둘이서 방해받지 않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더 잘 놀 수 있으니까요. 경민이를 집으로 초대할 때에는 정우에게 경민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얘기해보세요. 좋아하는 장난감, 좋아하는 간식, 좋아하는 놀이... 경민이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경민이가 생활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민이를 초대하는 날 경민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정우와 함께 준비해 보세요. 정우에게는 친구를 맞이하는 설렘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복함을 맛보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경민이에게는 작은 것이라도 그 자체가 귀한 대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친구를 사귄 수 있게 배려하시는 정우 어머니의 노력만큼 정우도 넉넉하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Q 우리 기현이가 자주 민우의 행동을 따라 해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사실 좋아 보이지 않네요. 가끔은 그런 행동이 꼭 계속되어 습관이 되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A 민우와 친해지게 되면 곧 없어질 일시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기현이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가끔은 아이들이 민우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 속상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 신기하고 새로운 것을 따라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유행어나 개그맨의 말을 따라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곧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기현이가 민우를 '새롭고 이상한 친구'로 생각해서 민우의 행동이 신기해보이나 봅니다. 그러나 민우와 함께 생활하고 민우를 친구로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조금은 편안하게 받아들이주세요. 어른들이 걱정하고 관심을 보이면 오히려 더 많이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 기현이가 민우를 '친구'로 생각하고 민우의 느낌을 생각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현이가 민우의 행동을 따라할 때 민우는 어떤 기분이 들지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민우의 특이한 행동 이외에 다른 특징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민우 가방은 파란 색이더라. 민우는 파란 색을 좋아하니까", "민우 엄마가 그러는데 민우가 딸기를 좋아한대. 우리 기현이도 딸기 좋아하지?" 하고 말씀해주시면 기현이도 민우가 자신과 별다르지 않은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